

노인의 여가활동욕구와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A Stud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Needs and Perception of Psycho-Social Aging among Older Adults

임효연, 이순민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Hyo Yeon Lim(yellyhy@sjcu.ac.kr), Soon Min Lee(smlee2@sjcu.ac.kr)

요약

본 연구는 변화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욕구를 파악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활동욕구 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어졌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집된 2015년 G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13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가대상자들의 여가활동욕구 정도에 대한 인식은 스포츠참여 및 건강관련 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지역사회교류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취업 및 노후설계교육활동, 취미오락활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여가활동욕구 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취미오락활동 욕구와 취업 및 노후설계교육 욕구가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제요인인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제언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체험활동 지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탐색의 기회 제공, 노년기 여가욕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시되었다.

■ 중심어 : | 여가활동욕구 |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 노인여가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needs and perception of psycho-social aging among 1307 older adults aged over 60 years utilizing social services of a social welfare center for senior citizens in Seoul, Korea. A convenience sample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or three weeks in December 2012 among older adults via paper surve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utilized to analyze collected data.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age, years of education, perception of health status, and perception of economic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However, years of education and perception of economic status were no longer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ption of psycho-social aging, when leisure needs was included. Age, perception of health status, and hobbies/entertainment activities and employment/plan of later years activities among types of leisure need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ption of psycho-social aging. This finding demonstrates that leisure needs influence perception of psycho-social aging.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improve perception of psycho-social aging among older adults are discussed.

■ keyword : | Leisure Needs | Perception of Psycho-social Aging | Leisure of older Adults |

1. 서론

2016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6,853,885명으로 총인구의 13.28%에 달하고 있다. 2000년 고령화를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들어선 이후, 20년이 채 되기 전에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1].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고령화의 빠른 전개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진입을 시작하면서 더욱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즉, 기존의 빈곤과 허약으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여가'의 문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현대사회의 노인은 직업적 은퇴와 함께 늘어난 평균 수명만큼 증가한 노년기의 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이들은 과거 70-80년대의 노인들과는 다르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갖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관리나 삶의 보람, 다양한 문화나 취미, 여가활동을 향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여가욕구를 가지고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인 여가는 노동이나 학습 등 강제적으로 규정된 시간 이외의 자유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칭하는데, 사실상 직업적 은퇴를 거친 노인의 경우, 수면과 식사 등의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자유시간으로 가지게 된다[3]. 이러한 자유시간동안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노년기 여가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인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기회의 제공, 생활 만족

도 및 심리적 안정감, 삶의 행복감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4]. 노년기의 긍정적인 여가경험은 노인의 노화현상을 늦추어주는 등 신체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5], 여가활동 참여가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6].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생활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안녕상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10]. 또한 여가활동을 포함한 적극적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는 노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역할 및 개인적인 가치와 만족감을 부여해주며, 긍정적 자기인식을 갖게 하고 소속감을 증진시켜 우울이나 고독감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을 한다[11]. 이 때문에, 노인 여가는 노인문제의 예방 및 치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12].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여가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노인여가욕구를 민감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에만 치중한 여가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왔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2][3][13].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특성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여가활동 매칭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까지의 노인 여가욕구에 관련된 연구들은 지역 단위별로 여가활동 실태나 여가만족도와 연관성 [12][14-16], 또는 노인 여가활동 유형 결정요인[17]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노인여가활동 수행 정도가 아닌 어떠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심리사회적 노화인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신체적 노화에 따라 의존도가 커지는 노년기에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는 노년기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여가활동욕구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노인복지현장에서 여가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매칭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욕구를 파악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활동욕구 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발달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여가활동욕구

노인여가활동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C. Gordon[18]은 노인여가활동을 타인과 활발한 상호작용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긴장해소 활동형, 기분전환 활동형, 발전적 활동형, 창조적 활동형, 창조적 쾌락 활동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긴장해소 활동에는 홀로 있음, 조용한 휴식, 수면 등이 포함되며, 기분전환 활동에는 사교, 손님접대, 경기관람, 게임, 놀이, 대화, 취미, 독서, TV, 라디오 등이 분류될 수 있다. 발전적 활동에는 체조 및 개인운동, 학습활동 및 수준 있는 독서, 심리적 활동참여, 클럽이나 조직 참여, 관광 및 여행이 해당되며, 창조적 활동에는 예술, 문학, 음악 등 창조적 활동, 양육, 수준 높은 토의, 미술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감각적 쾌락활동에는 성행위, 충동적 약물사용, 무아경지의 종교체험, 육체적인 공격적 행동, 운동경기, 격정적 춤이 분류될 수 있다.

노인여가에 대한 연구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여가활동 유형인 긴장해소 활동이나 기분전환 활동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진욱[19]의 한국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시간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나 10년이 지난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휴식활동을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며 그 중에서도 TV시청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이었다[20][21]는 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극적인 노인여가활동의 실태와는 달리, 노인들은 좀 더 유용하고 바람직하게 여가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선민[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욕구는 건강, 사교, 지식습득의 욕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에 대한 여가욕구는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에서도 건강에 대한 여가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과 도시지역 노인의 여가욕구를 비교 조사한 김영란[12]의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지역 노인 모두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여가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나, 주로 TV시청, 화투, 낮잠 등의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건강, 자기개발활동과 스포츠 및 건강활동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나향진[23]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프로그램으로 오락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프로그램으로 학습이나 시사상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년[24]의 연구에서도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여가활동으로 친지와 의 교류, 건강증진활동, 취미 및 오락 활동, 새로운 지식습득 및 교양학습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순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문헌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여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여가에 대한 욕구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정서[25]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노인의 여가활동욕구가 달라진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형태, 지리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문화적 조건에 따라 노인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욕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노인의 여가활동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반대로 여가활동욕구가 노인의 심리적 상태, 특히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욕구와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했을 때 노년기는 젊은 시기와 다른 특징을 지닌다. 즉 생물학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부터 노년기에는 심리사회적인 조건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된다[26]. 신복기[27] 역시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 자신도 세대 간의 단절, 인간적 가치의 저평가 등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내면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S. Giblin[28]의 연구에서도 노인은 자신이 겪게 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은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에도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29].

따라서 노년기는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의존도는 커지나, 오히려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따른 긍정적인 노화인식은 심리사회적 성숙의 주요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 C. E. Vaillant[30]는 성공적 노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이 있으며, 심리사회적 건강은 주관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시기로서의 개인의 생각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공적 노화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개인의 신체건강과 경제력과 같은 개인이 처한 생활여건이나 조건 그 자체가 성공적 노화를 담보로 해주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31], 개인이 자신의 노화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이 성공적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2].

이러한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은 노년기 생활 전반에 깊은 연관을 보여주고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가 되어왔다. 노년기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과정에 대한 심리사회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33]. 구체적으로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을 더 잘하고, 인지기능도 높고, 질취수도 적으며, 사회활동도 더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34]. 또한 우울이나 불안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노화인식과 부정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가 되고 있으며[35][36],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정신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36].

나아가 스포츠 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의 배움 활동 등 여가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가 되어 왔으며[37-39],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 J. Havighurst[40]의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년의 시기에도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에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성공적으로 노화한다고 보고되고 있다[41-45].

다만, 여가활동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욕구에 따른 심리사회적 노화인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노인 개인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욕구에 따라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년기의 적응과 심리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매칭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G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설문지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3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답변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 실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목적 외에는 자료가 공개되는 일이나 개인을 특정하는 일이 없음을 알리는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2. 조사도구

1) 노인의 여가활동욕구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문화욕구의 공식적 기준 통계자료인 문화관광부 문화여가활동조사[46]를 근거로 이정서[25]가 설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노인 여가활동욕구 척도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1점)”로부터 “매우 하고 싶다(5점)”까지 있는 5점 Likert척도로, 휴식 및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을 제외한 사회참여를 통한 적극적 여가활동 중심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연구에서는 문항들을 6가지 큰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1) 문화예술 관람활동 [예: “영화관람”, “대중음악(콘서트) 관람” 등 4문항, 총합점수 20점]; (2) 문화예술 참여활동 [예: “미술(그림, 조각, 공예, 서예 등)”, “인문소양(시낭독, 독서모임 등)” 2문항, 총합점수 10점]; (3) 취업 및 노후설계교육 [예: “노후설계교육(실버메이크업, 재무 등)”, “취·창업활동 지원 및 교육” 2문항, 총합점수 10점]; (4) 지역사회교류활동 [예: “동아리, 동호회 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 4문항, 총합점수 20점] (5) 스포츠 참여 및 건강관련 활동 [예: “레크레이션, 무용(댄스, 우리춤체조 등)”, “체육(헬스, 조깅, 기타 운동)”, “건강지원(물리치료, 무료진료, 건강상담교육 등)” 3문항, 총합점수 15점]; (6) 취미오락활동 [예: “장기, 바둑 교실”, “생활문화(화초, 다도, 노래교실 등)” 등 3문항, 총합점수 15점]. 여가활동 영역별 각각의 총합점수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정서[25]의 연구에서 노인 여가활동욕구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은 G. C. Smith[46]의 Self-perceived adverse age-change 척도를 김고은[47]이 변안 및 수정하고 정순들의 두 연구[36][48]에서 심

리사회적 노화인식으로 사용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본인의 연령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의 에너지나 의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묻고 있으며 이들 문항은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다”, “몇 년 전보다 기운이 없다”, “몇 년 전보다 일과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등을 포함한 5점 Likert척도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심리사회적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척도는 다양한 노화인식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정순들[4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 정순들의 또 다른 연구[3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2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이었다.

3) 인구나사회학적 변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학력),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거주형태는 가족 혹은 친척과 함께 살 경우 1로, 혼자 살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나쁘다’(1점)부터 ‘매우 좋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대학원졸업까지 연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주관적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나쁘다’(1점)부터 ‘매우 좋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 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노인 복지관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를 알기 위해 빈도 분석과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와 여가활동욕구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욕구 정도 및 심리사회적 노화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1312명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평균 연령은 75.49세 (SD=6.16)였으며 연령분포는 최저 60세에서 최고 96세까지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34.2%(n=449), 여성이 65.8%(n=863) 이었다. 거주 형태는 독거가 33.2%(n=400)이었으며, 66.8%(n=806)는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족 혹은 친척 등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는 평균 9.02년으로 평균학력은 중학교 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학이 9.6%(n=126), 초졸이 30.7%(n=403), 중졸이 19.1%(n=261), 고졸이 12.8%(n=333), 대학원 졸업이 1.7%(n=22)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0.4%(n=267), 보통이다는 응답이 28.3%(n=370),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한 편이다는 응답은 51.3%(n=672)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는 응답이 39.3%(n=513), 보통이다는 응답이 36.9%(n=482),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3.9%(n=312)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내용	전체 표본수	조사대상자	
		n	%
나이(60-96세)		75.49 (SD=6.16)	-
성별			
	남성	449	34.2
	여성	863	65.8
거주형태			
	가족과 거주 독거	806 400	66.8 33.2

교육연수	9.02 (SD=4.52)	-
무학	126	9.6
초졸	403	30.7
중졸	261	19.1
고졸	333	12.8
대학원졸	22	1.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못하다	71	5.4
건강하지 못한편이다	196	15.0
보통이다	370	28.3
건강한 편이다	547	41.8
매우 건강한 편이다	125	9.5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부족하다	117	9.0
부족하다	396	30.3
보통이다	482	36.9
만족하다	229	17.5
매우만족한다	83	6.4

2) 여가활동욕구 정도와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여가활동욕구 정도에 대한 인식은 [표 2]와 같다. ‘문화예술관람활동’은 전체 총합의 평균 3.15점(SD=1.01), ‘문화예술참여활동’은 평균 2.91점(SD=1.09), ‘스포츠참여 및 건강관련 활동’은 평균 3.40점(SD=0.97)으로, 지역사회교류활동은 평균 3.07점(SD=0.92), 취미오락활동은 평균 2.72점(SD=0.94), 취업 및 노후설계교육활동은 평균 2.91점(SD=1.08)으로 나타났다. 각 여가활동별 욕구가 높이 나타난 활동들을 살펴보면, 스포츠참여 및 건강관련 활동에서는 건강지원(물리치료, 무료진료, 건강상담교육 등), 체육(헬스, 조깅, 기타 운동), 레크레이션, 무용(댄스, 우리춤체조 등) 순으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관람활동에서는 영화관람, 공연예술관람(연극, 가요제), 대중음악(콘서트) 관람의 순으로 욕구가 높았다. 지역사회교류활동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지역문화축제,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 경로당에서 대화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예술참여활동에서는 미술(그림, 조각, 공예, 서예 등)에 대한 욕구가, 취미오락활동에서는 생활문화(차초, 다도, 노래교실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이 나타났다.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의 총점은 20.35점으로,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39점(SD=1.06)

이었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정순돌[36]의 연구에서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약간 더 노화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가활동욕구 정도와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점수범위	
			최소	최대
문화예술관람활동 (N=1247)	3.15	1.01	1	5
영화관람	3.40	1.18	1	5
대중음악(콘서트) 관람	3.18	1.19	1	5
공연예술관람(연극, 가요제)	3.19	1.19	1	5
조형예술관람 (조각, 그림, 사진 등)	2.89	1.18	1	5
문화예술참여활동 (N=1253)	2.91	1.09	1	5
미술(그림, 조각, 공예, 서예 등)	3.01	1.26	1	5
인문소양(시낭독, 독서모임 등)	2.82	1.20	1	5
스포츠참여 및 건강관련 활동 (N=1253)	3.40	0.97	1	5
레크레이션, 무용 (댄스, 우리춤제조 등)	3.12	1.24	1	5
체육(헬스, 조깅, 기타 운동)	3.42	1.21	1	5
건강지원 (물리치료, 무료진료, 건강상담교육 등)	3.70	1.16	1	5
지역사회교류활동 (N=1246)	3.07	0.92	1	5
지역문화축제	3.07	1.15	1	5
경로당에서 대화하기	3.02	1.16	1	5
동아리, 동호회 활동	3.07	1.20	1	5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3.13	1.18	1	5
취미오락활동(N=1230)	2.72	0.94	1	5
장기, 바둑교실	2.66	1.24	1	5
생활문화 (화초, 다도, 노래교실 등)	3.27	1.21	1	5
내기, 마작, 화투등 놀이	2.26	1.22	1	5
취업 및 노후설계교육활동 (N=1251)	2.91	1.08	1	5
노후설계교육 (실버메이크업, 재무 등)	2.99	1.18	1	5
취·창업활동지원 및 교육	2.84	1.23	1	5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N=1287)	3.39	1.06	1	5

2.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활동욕구 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분산팽창계수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모델 1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F=32.401, p<.001$), 모델의 설명력은 15.5%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beta=.255, p<.001$), 교육연수($\beta=-.069, p<.05$), 주관적 건강상태($\beta=-.201, p<.001$), 주관적 경제상태가 심리사회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낮다고 느끼는 노인일수록, 심리적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노화인식 모델 2에서는 여가활동욕구 정도 요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18.5%로 증가하였으며($F=19.959, p<.001$),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본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욕구를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beta=.254, p<.001$)과 주관적 건강상태($\beta=-.227, p<.001$)만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욕구 중에서는 취미오락활동($\beta=.136, p<.01$), 취업 및 노후설계활동($\beta=-.106,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 바둑, 노래교실과 같은 취미오락활동에 참여욕구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노후설계교육 참여욕구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여가활동욕구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심리사회적 노화			
	모델 I		모델 II	
	b (SE)	β	b (SE)	β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45 (.00)	.255***	.045 (.00)	.254***
성별 더미 (남성=0)	.044 (.07)	.020	.097 (.07)	.043
가구상태 (독거=0)	-.125 (.06)	.069	-.105 (.06)	-.046
교육연수	-.016 (.00)	-.069*	-.012 (.00)	-.049
주관적 건강상태	-.222 (.03)	-.201***	-.251 (.03)	-.227***
주관적 경제상태	.056 (.03)	.054	.045 (.03)	.043
여가활동욕구 정도				
문화예술관람활동			-.004 (.01)	-.017
문화예술참여활동			.006 (.02)	.012
스포츠참여 및 건강관련 활동			.019 (.01)	.053
지역사회교류활동			.027 (.01)	.095
취미오락활동			.051 (.01)	.136**
취업 및 노후설계 교육활동			-.052 (.02)	-.106*
F	32.343***		19.959***	
R ²	0.155		0.185	
AdjR ²	0.150		0.176	

*p<0.05, **p<0.01,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변화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활동욕구 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발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주요 결과에 따른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대상자들의 여가활동욕구 정도에 대한 인

식은 스포츠참여 및 건강관련 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지역사회교류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취업 및 노후설계교육활동, 취미오락활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 관련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선행연구 박선민[2], 김영란[12], 김성연[22]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한 걷기 프로그램, 건강지식 교육 프로그램,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등이 보다 더 개발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문화예술관람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여가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들이 연극, 음악, 공연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등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외에도, 동아리, 동호회 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교류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친지와 의 교류,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사회교류 및 사교에 대한 노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24]. 노인의 지역사회교류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은 사회참여활동이 노인의 심리적·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고[41], 사회적 관계를 통해 노인의 건강 및 심리적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0][51]. 이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 연결 프로그램,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 결성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대상자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정순들의 두 연구[36][48]의 연구결과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 스스로가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노화 및 노년기에 대한 노인교육이 젊은 시기에서부터 도입이 되어 부정적 고정관념을 안고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도록 인식교육이 요구될 것이다. 노년기에 노인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생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노인들은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해지며 자아통합과 지혜를 얻

게 된다[50]. 타인에 대한 배려, 자아성찰을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과 만족 등 노화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기를 수 있는 노년기의 발달과정에 대한 인식교육 및 노년기 후기의 신체적 제약을 넘어서는 성숙한 노화태도 함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진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여가활동욕구 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취미오락활동 욕구와 취업 및 노후설계교육 욕구가 노화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미오락활동 욕구가 높은 노인의 노화인식이 부정적이었고, 취업 및 노후설계교육의 욕구가 높을수록 노인의 노화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여가욕구 활동에 따라 노화인식의 방향이 상이했다는 것이다. 장가나 바둑과 같은 정적인 취미오락활동에 대한 여가욕구가 높은 노인은 자신의 노화인식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취업이나 창업, 노후설계교육활동에 대한 여가욕구가 높은 노인은 자신의 노화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두 가지의 여가활동영역은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하다. 전자는 정적이고 시간 소모적이며 현재지향적인 반면, 후자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 목표지향적이다. 여가활동의 성격의 차이는 노인의 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노인복지실천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정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는 노인들이 노화인식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여가를 선호하는 노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당 여가를 선호하는지 파악하고, 부정적 노화인식을 가질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제요인인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노화인식이 부정적이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화인식이 긍정적이었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6]. 후기노인으로 갈수록 만성질환과 같은 신체적 허약상태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면 노화인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된다. 한편으로는 나이듦과 신체적 허약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노화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건강 증진 및 관리에 관련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가활동욕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노년기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실천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체험활동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청소년의 경우, 진로체험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학사지도가 되고 있는데, 시니어들에게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년기 여가욕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구의 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노인으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여가활동욕구에 따라 노화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봤으나 취미오락활동과 취업 및 노후설계활동 욕구 외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좀 더 세밀한 여가활동욕구를 분류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여가활동을 연계하는 데 있어 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노인여가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여가활동욕구의 분야에 따라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좀 더 노인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연계와 기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1] 통계청, <http://kostat.go.kr/>, 2016.
- [2] 박선민, *노인여가욕구를 기초로 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 윤소영, “노인 여가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0권, 제4호, pp.47-63, 2006.
- [4] M. J. Leitner and S. F. Leitner, *Leisure in Later Life*, The Haworth Press, 1985.
- [5] 허준수, *노인여가*, pp.135-136, 한국노인복지학회 편, *노인복지학 사전*, 학현사, 2006.
- [6] 변혜숙, 이준성, 나송숙, “노인의 여가활동이 건강 증진행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비교,” 제8권, 제2호, pp.53-63, 2013.
- [7] M. G. Ragheb and C. A. Griffith,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 persons,” *Journal of leisure*, 1982.
- [8] 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윤경아,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 [9] 전명수, “농촌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298-310, 2014.
- [10] 박순미,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제53권, pp.291-318, 2016.
- [11] 박경희, *치매주간보호서비스가 치매노인 주수발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2] 김영란, 이수애, 권구영, “농촌과 도서지역 노인의 여가실태 및 욕구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연구*, 제19권, 제1호, pp.105-140, 2010.
- [13] 이종호, 이용인, 김동건, 조민행, “노인체육 편: 능동적 노화대처 전략을 위한 여가교육 프로그램 모형 구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4권, pp.479-491, 2005.
- [14] 최호경,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경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5] 장연옥, *현대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6] 문제경,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7] 임효택, 송채훈,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여가활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5호, pp.303-314, 2005.
- [18] C. Gordon, C. M. Gaitz, and J. Scott,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span*,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pp.310-341, Academic Press, 1976.
- [19] 김진욱,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32권, pp.149-177, 2006.
- [20] 정경희,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주요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2005.3권, pp.49-65, 2005.
- [21] 황남희, “노인의 여가활동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23호, pp.57-67, 2015.
- [22] 김성연, 박미선,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제1호, pp.67-84, 2000.
- [23] 나향진, “서울지역 노인의 여가의식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2권, pp.35-54, 2003.
- [24] 김희년, 정미숙, “지역사회복지시설 이용노인들의 여가활용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6권, pp.263-285, 2004.
- [25] 이정서, *노인문화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 요인 분석: 서울시 5개권역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26] 김희영, 정봉교, “농촌지역 노인의 주관적인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생활습관과 사회심리적 변인에 대해,” *한국노년학*, pp.295-313, 2015.
- [27] 신복기, 성향숙, 김수영,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4권, pp.313-336, 2006.

- [28] S. Giblin, L. Clare, G. Livingston, and R. Howard, "Psychosocial correlates of late-onset psychosis: life experiences, cognitive schemas and attitudes to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9, pp.611-623, 2004.
- [29] 유정화, "노인 집단에서 일상생활능력의 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화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pp.3-20, 2016.
- [30] C. E. Vaillant, "Successful ag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a 45-years study, In E. H. Thompson, Jr. (Ed), *Older men's lives*, Sage, pp.22-41, 1994.
- [31] 최해경,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과 예측 요인: 한국적 성공적 노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pp.193-217, 2013.
- [32] A. Bowling and P. Dieppe "What is successful ageing and who should define it?," *BMJ*, No.331, 2005.
- [33] 이신영, "중·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31집, 제1호, pp.287-306, 2012.
- [34] 안정신, 정영숙, 서수균, "성숙한 노화 태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6권, 제2호, pp.127-143, 2013
- [35] 조진희, 김분한, "중년여성의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우울,"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19권, 제2호, pp.259-266, 2012,
- [36] 정순달, 임정숙, 이미우, 정세미,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및 정신건강변수와 건강정보이해력 및 정신건강정보이해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1호, pp.123-149, 2016.
- [37] 김경식, 이은주, "구두발표: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이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47권, p.307, 2009.
- [38] J. A. Liffiton, S. Horton, J. Baker, and P. Weir, "Successful aging: how does physical activity influence engagement with life?,"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Vol.9, No.2, pp.103-108, 2012.
- [39] 김정영, 한상훈,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심리적 안녕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발전논총*, 제34권, 제2호, pp.179-208, 2013.
- [40] R. J. Havighurst, B. L. Neugarten, and S. S. Tobin, Disengagement pattern of aging,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 Aging*, pp.160-17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41] 권중돈, 조주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 집단과 경제활동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 [42] 김미령,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제28권, 제1호, pp.3-23, 2008.
- [43] 박경숙, *노인전문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척도*,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 [44] 이형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45] 홍희석, 광미정, "노인의 여가만족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지방자치행정의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pp.199-213, 2015.
- [46] G. C. Smith, S. S. Tobin, and E. M. Fuller, "Elderly mothers caring at home for offspring with mental retardation: A model of permanency planning,"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Vol.99, No.5, pp.487-499, 1995.
- [47] 김고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돌봄만족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48] 정순돌, 전혜상, 송아영,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정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 주민참여환경, 주거환경, 복지 및 의료환경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pp.29-46, 2015.
- [49] 문화관광부,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여가활동조사, 2012.
- [50]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1963.
- [51] 오미경, “성공적 노화와 사회적 관계,” 뇌교육연구 특별호, pp.149-181, 2011.

저 자 소 개

임 효 연(Hyo Yeon Lim)

정회원



- 2008년 3월 : Osaka City University 노인복지전공(Ph.D)
- 2008년 9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교육, 중장년기 은퇴설계

이 순 민(Soon Min Lee)

정회원



- 2008년 12월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사회복지전공(Ph.D)
- 2009년 3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시각장애학생의 사이버교육, 정신건강